

치앙마이에서 온 편지(7)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국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서 중국 정부가 해외 여행 규제를 풀 이후 치앙마이는 많은 중국 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기존 신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자녀들 영어교육이라는 이유로 이곳 치앙마일로 오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앙과 삶이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전도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도 커지면서 공안국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 본토 못지 않게 안전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단체가 이곳에 센터를 세우고 선교훈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 추방된 한국 선교사 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도 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몇 가지 사역을 보고 드리고,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등록된 가정이 42가정, 인원이 아이들 포함서 72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행정적 측면에서의 교인관리와 영적성장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5개의 소그룹을 편성하여 교인관리와 영적인 교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소그룹 성경공부 교제입니다. 또한 소그룹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중국어로 된 교제나 신앙도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나 출판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매월 첫 주일 예배에 성찬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임직을 받고, 더군다나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성찬식을 인도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성찬식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차 확신반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들 중 6명이 4월 1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2021년에는 8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2022년에는 2명, 2023년에는 상반기에 6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매월 2~3회 설교와 찬양사역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인 선교사 한 가정(YM소속)이 함께 저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YM DTS 훈련 스텝이기도 해서 앞으로 교회 안에 DTS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성도들의 영적훈련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도부탁을 드렸던 기숙사 사역을 곧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숙사로 사용할 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침대, 책상, 주방기구 등을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약 8명의 학생이 선정되고 이들을 관리할 선생님이 들어오고 5월 개학에 맞추어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미얀마 변경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정의 아이들과 도시에 살고 있



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방콕으로 떠나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바라기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꿈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을 위한 교사는 충분한데 청소년을 담당한 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선교의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변화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신실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중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의 연단을 잘 이겨내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으로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 1.4월 1일(토)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2.4월 18일 일시 귀국하여 중국어 교제 구입 및 병원 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단체나 출판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3.선교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과 선교적 사명을 가진 동반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성령충만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3년 3월 25일

문은석선교사 드림